

# 수출에 필요한 마케팅 제공

### 전북중기청, 올해 지역 특화형 수출바우처 신청·접수 코로나19로 힘겨운 내수·수출초보기업이 지원 대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6일부터 17일까지 내수·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에 필요한 모든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2020년 지역 특화형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발 경기 침체의 여파로 위축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전북지역 특화형 사업'이다.

지역 특화형 사업은 기존 바우처사업과 동일한 형태이나, 전북지역 특성에 맞게 코로나19로 힘겨운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지역 경기 상황을 감안해 위기지역·위기 업종을 우대 지원하는 것을 골자

로 하며, 20개사 내외로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업에는 '수출준비에서 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비를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기업은 지급된 바우처로 수행기관 등을 통해 수출전략·홍보·전시회·규격 인증 등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한도 내에서 1년 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지원대상이 전북 소재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 실적 10만불 미만의 내수 및 수출초보기업이라는 점이다. 이는 수출준비가 미흡하고 수출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 중점 지원할 별도 사업 마련이 절실하다고 판단된 데 따른 조치다. /김윤상 기자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액 또는 수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코로나 피해기업은 우선 선정하고, 중기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우대 지원한다. 수출유망중소기업은 물론, 대형유통망 입점 참가 신청기업(4~5월) 및 온라인 화상상담회 참가 신청기업(6월)도 그 대상이다.

안남우 청장은 "최근 확진 환자의 증가 등 코로나19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관료가 막힌 내수기업 및 수출 첫걸음 단계의 기업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6일부터 17일까지이며, 전북중기청 홈페이지 알림소식의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여름철 집중호우 '열매 터짐' 주의

### 농진청 "필름 등 덮어 토양 수분 조절해야"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주요 과일의 수확기를 앞두고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열매 터짐에 대비해 과수원 토양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난 3일 당부했다.

열매 터짐(열과)은 7월~8월 성숙 시기에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이 번갈아 나타나면 과수원 토양 수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나무 밑에 풀을 재배하는 초생 재배와 필름 등을 덮는 방법으로 토양 수분을 알맞게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껍질 탄력이 떨어진 익은(완

숙) 복숭아가 갑자기 많은 양의 비를 맞으면 지나친 수분이 열매로 흡수돼 터짐 현상이 쉽게 발생한다. 포도 등 장과류의 터짐을 막기 위해서는 송이 내 적정 포도알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캠벨얼리' 기준으로 75~80알 정도가 적당하다. 또한, 터진 열매는 오랜 시간 비에 노출되면 당도가 떨어지고 2차 병원균 감염에 취약해지므로 미리 제거 해야 한다.

집중호우로 침수가 우려되는 저지대나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과수원은 미리 배수로(물 빼는 길)를 정비하고,

지면에서 높이 50cm 정도의 두둑을 만들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한다. 눈은 과수원으로 변경한 곳은 물 빠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집중형 배수장치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과수 중에서도 복숭아나무는 오랜 기간 물에 잠기면 잎이 일찍 떨어지거나 뿌리가 썩게 되므로 물을 빨리 빼준다. 장마나 집중호우가 지나간 뒤에는 강한 직사광선이나 폭염으로 인해 과실 햇볕 데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정관 과수과장은 "올여름 긴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과수 재배 농가에서는 적절한 토양 수분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 데이터 품질 '최고등급'

### LX 지적측량바우처리시스템·전사정보관리체계 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플래티넘 클래스' 인정받아

디지털혁신성장 선도하는 한국 국토정보공사(LX, 사장 직무대행 최규성)가 데이터 품질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LX는 지난 3일 서울시소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민기영)으로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최고등급인

'플래티넘 클래스(Platinum Class)'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 받은 시스템은 공사가 운영하는 '지적측량바우처리시스템'과 '전사정보관리체계' 2가지다.

데이터 품질과 관리인증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정보품질과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LX가 이번에 획득한 플래티넘 등급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품질 영향요소 전반이 얼마나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정합률을 99.97%이상 보장하는 수치다.

LX는 이번 최고등급 획득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기반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품질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데이터 안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한 신규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최규성 사장직무대행은 "오늘 품질인증 최고등급 달성은 데이터 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한 공사 노력의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스마트 국토시대를 열어가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국토정보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바우처리시스템'은 LX에서 지적측량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구축한 국내 지적측량 서비스 대표브랜드이며, '전사정보시스템'은 공사의 행정과 의사결정, 정책지원과 데이터 활용 등 데이터 관리수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다. /김윤상 기자



LX는 지난 3일 서울시 소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최고등급인 '플래티넘 클래스(Platinum Class)'를 인정받았다.

## 오늘부터 내달 14일까지 호남·제주 경제통계 통합조사

### 호남통계청, 5만개 업체 대상

호남지방통계청(청장 이호석)은 지역 경제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광주·전남·전북·제주의 약 5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중부조사 최소화 사업제 응답부담을 경감코자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기업활동조사, 서비스

업조사, 운수업조사 등 9종의 경제통계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조사다.

조사항목은 사업의 종류, 종사자수, 사업실적 등과 매장면적, 객실(석) 수, 연간 제품품 출하액 등 업종별 특성항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는 조사별로 2020년 11월~2021년 2월에 공표 예정이며, 산업별 구조변화, 산업연관표·국민소득추계,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 연구기관·대

학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된다.

이호석 호남지방통계청장은 2020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와 관련해 "급변하는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해 정부가 각종 경제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작성된 통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정확한 통계작성은 조사대상처의 정확한 응답에서 시작되므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 전은, 'JB카드 2020 하반기 이벤트' 시행

###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30% 인하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JB카드 2020 하반기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하반기 이벤트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시장 활성화와 세금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JB카드로 자동차 구매시 5백만원 이상 승인건에 대해 선결제 시에는 결제금액의 1.0%에서 최대 1.5%, 일시불 결제시에는 결제금액의 0.8%에서 최대 1.3%를 익월 20일 본인카드 결제계좌로 캐시백 해준다.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되고, 타 제휴혜택 및 이벤트 중복적용은 불가하다.

더불어 JB카드는 코로나19로 침체돼 있는 가계 경제 부담을 덜어주고자 국

세 카드납부 대행 수수료 환급 이벤트를 시행하며, 국제, 지방세, 관세, 4대 보험, 경찰청 과태료, 검찰청 벌과금, 법원 인자대 등 세무 건별 5만원 이상 결제 시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연말까지 진행한다. 세금은 납부 후 취소 및 변경 불가하니 신중한 납부가 필요하다.

전북은행 카드사업부 관계자는 "소비시장 활성화와 JB와 함께하는 고객님에게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이벤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 및 고객센터(☎1588-4477), 뉴 스마트뱅킹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 농작업 대행 적극 추진

### 신태인농협 김성주 조합장 '우수조합장' 상 선정·수상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지난 3일 농촌 0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담 해소 방안으로 '농작업 대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태인농협 김성주 조합장(사진)을 '우수조합장'으로 선정·시상했다.

김 조합장은 취임 이후 조합원 권익 보호와 농업소득 증대 및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농협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된 농촌의 영농일손 지원, 생산비용 절감과 벼농사의 보리, 콩, 귀리 등 타 작목 배배를 희망하는 중소농가 육성을 위한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만족도를 제고했으며, '무인드론 방제'를 통한 병충해 확산 방지, 농업인의 농약 중독 및 중독 살포 방지를 도모했다.

##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 참여자 성적 '우수'

### 참여 수기 부문 '우수상' 영상 부문 '장려상' 수상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참여자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전북도와 경진원은 도내 청년들의 실업 해소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경제 사업장에 250명의 도내 청년들의 취업을 연계하는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전북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사업장(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

조합 등)에 도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최대 2년)하고 정규직이 될 수 있게 도와 우리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업의 성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우수사례 공모전'을 진행했으며, 최근 20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그 중 경진원의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참여자 2명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참여 수기 부문 '우수상'(김현수/문화기획 섬진강 소속)과 영상 부문 '장려상'(전새미/유한회사 플라츠 소속)을 수상했다.

지원사업 관련 사항은 청년혁신가 홈페이지(http://청년혁신가.kr)와 경진원 자치경제팀(063-711-2086~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또한, 도시 지역민과 자매결연을 통한 도농교류 사업으로 농촌방문 이벤트 행사, 계절 일손돕기 등을 주최해 농업·농촌 알리기에 기여했으며, 지역에서 생산된 콩, 팥, 서리태, 쥐눈이콩, 참깨, 들깨, 고추가루 등 친환경 농산물 홍보·판매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 외에 김 조합장은 지난 2009년부터 인천시 민수4동과 자매결연 후 매년 정기적인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해 농업인 안전한 먹거리 제공, 소비자는 믿고 찾는 고품질 농산물 소비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에 건립한 '농민 행복센터'는 휴식터 기능 외에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 승화해 농민우선 정책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김윤상 기자